



한국 VS 이라크 준결승 오늘 오후 7시20분

조재진 결승행 선봉에 선다

부상 이동국 대신 원톱 출전

염기훈·이천수 좌우날개로

베어벡호가 47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문턱에서 '중동의 북병' 이라크와 운명의 대결을 펼친다. 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7시20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부티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이라크와 대회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은 역대전적에서 5승9무2패로 앞서고 있는데다 지난달 29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염기훈(전북), 이천수(울산), 이근호(대구)의 연속골로 3-0 대승을 거둬 승리를 향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우승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태극전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상이다.

베어벡 감독은 이라크전에 좋은 리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진 이동국(미들즈브러) 대신 조재진(시미즈)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중앙 수비진이 스피드에서 떨어진다. 전력분석에 따라 좌우 공격 수로는 발 빠르고 투지가 뛰어난 염기훈(전북)과 이천수(울산)가 먼저 출격할 것으로 보이며, 최성국(울산)과 이근호(대구)가 벤치에서 감독의 교

조재진



하지만 김두현(성남)이 항상 백업멤버로 대기하고 있는 만큼 베어벡 감독에게 큰 걱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비롯한 포백(4-back)은 주전조가 확실히 구분된 만큼 이라크와 치른 8강전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김상식-손대호(이상 성남)의 '더블 볼란테'조를 중심으로 베어벡호의 '젊은 피 황태자 군단' 김치우-김진규-강민수(이상 전남)-오병석(포항)으로 이뤄진 포백 라인인 또 한 번 무실점에 도전할

다. 골키퍼는 이라크전에서 '거미손'의 진가를 다시 입증한 이운재(수원)의 몫으로 남아있다.

한편 이라크에서는 이번 대회 득점 랭킹 공동 2위로 뛰어오른 유니스 마흐무드(알 가라파)가 태극전사들의 '요주의 선수'로 손

꼽힌다. 또 조별리그에서 무릎부상으로 경기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미드필더 살레트 사디르(알 안사르)도 한국전 출전이 가능해 이라크의 전술운영에 힘을 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알고 보는 재미

도하아시안게임 패배 설욕하고 쿠알라룸푸르 불패 이어 가나?

▲도하에서 진 빛을 갈을 때=작년 12월12일 카타르 도하 알 가라파 스타디움. 2006 도하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준결승에서 한국은 이라크를 만났다.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해 순항하던 리를 베어벡호는 북병 이라크의 역습 한 방에 0-1로 져 눈물을 흘렸다.

그 때 이라크전에 뒀던 태극전사는 염기훈, 이천수, 최성국, 김치우, 오병석, 김진규 등 10명이다. 이라크는 1993년 카타르에서 열린 미국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도하의 기적'을 만들어준 고마운 팀이다.

같은 도하에서 한 번은 웃기고, 한 번은 울린 이라크를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났다.

▲쿠알라룸푸르 불패=한국은 이라크와 쿠알라룸푸르에서만 5번이나 맞붙었다. 당시 아시아권 최대 대회인 메르데카배가 무대였다. 1977~1981년 쿠알라룸푸르 연속 맞대결에서 거둔 성적은 3승2무.

1978년 메르데카배 결승에선 현재 현지에 파견돼 있는 이영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의 선제골로 2-0 완승을 거뒀다.

▲베어벡-비에이라 '유럽-남미 지라전'=베어벡은 네덜란드 출신, 이라크의 조르반

비에이라 감독은 브라질 출신이다. 베어벡은 거스 히딩크, 딕 아드보카트 등 명장급 지도자 밑에서 차근차근 수업을 받았고 유럽을 발판으로 한국, 일본 등 극동아시아에서 활동했다.

반면 비에이라는 1980년 카타르 클럽을 맡은 이후 중동 전문 축구 지도자로 성장했다. 오만 청소년대표, 쿠웨이트 알 카디시야 등 중동팀 사령탑을 순회하다시피 했고 이라크 대표팀은 단기 계약으로 맡고 있다. 유럽 출신 극동 전문가와 남미 출신 중동 전문가의 지라 싸움이다.

▲징크스 깐 상승세의 총돌=한국과 이라크 모두 징크스를 깨고 상승세를 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이라크와 악연을 끊었다. 1996년 아시안컵 8강에서 이라크에 2-6으로 참패한 수모도 씻어냈다.

이라크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세 대회 연속 8강에 머물렀던 '8강 징크스'를 씻고 4강에 올랐다.

■ 이라크 어떤 팀?

FIFA 랭킹 80위...대회 3회 연속 8강에 그쳐

베어벡호의 2007 아시안컵축구 준결승 상대 이라크는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보다 다소 열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한국 58위, 이라크 80위)은 물론 A대표팀 간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5승9무2패로 앞선다.

특히 1985년 6월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배 국제대회의 2-0 승리를 시작으로 22년 동안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2승4무). 올림픽대표팀 대역대 전적도 2전 전승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라크는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 4강에서 한국을 1-0으로 눌러 20년 만의 대회 우승 꿈을 꾀

렀다. 당시 이라크전에 출전한 선수가 현재 한국 대표팀에 10명이나 포진해 있다.

이라크는 이번 대회까지 아시안컵 본선에 6차례 올랐다. 4강은 본선 출전국 수가 6개 팀에 불과했던 1976년 이라크 대회 이후 31년 만이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3회 연속 8강에 머물렀다.

이라크는 2004 아테네 올림픽 4강 역전 유니스와 미드필더 나사트 아크람(23), 하와르 모하메드(25), 수비수 바심 알바스(25) 등이 팀의 주축이다. 지난 시즌 19골로 카타르 리그 득점왕에 오른 유니스는 이번 대회에서도 3골을 기록 중이다.

이라크전 주심 또 중동 출신

25일(이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국과 이라크의 2007 아시안컵축구 4강전 주심으로 쿠웨이트 출신의 알 파들리 사드 카밀 심판이 배정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4일 "한국-이라크전 주심으로 알 파들리 주심을 배정했다. 부심에는 알 마르주키(아랍에미리트연합) 심판과 푼 밍 파이(홍콩) 심판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어벡호는 UAE 심판이 휘슬을 분 이라크와 8강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중동 심판이 배정되는 상황을 맞았다.

반면 같은 날 열리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4강전은 호주 출신의 매튜 크리스토퍼 브리스 심판이 주심을 맡는다.

“석민아, 생일 축하해”

기아 타선, 12안타 폭발 '5승 선물'...롯데에 7대2 승

“(운)석민아, 21번째 생일 축하해!”

‘운석민 팬카페’ 회원들은 24일 광주 롯데전에 앞서 21 번째 생일을 맞은 윤석민(KIA)에게 떡으로 만든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다. 케이크에는 ‘윤석민 선수의 생일 선물로 5승 OK!’란 문구를 새겨넣었다.

평균자책점 3위(2.91)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최다패(4승 12패) 투수라는 불명예로 전반기를 마감한 윤석민의 호투쇼를 염원한 것.

이날 선발로 나선 윤석민은 팬들의 바람대로 광주구장에서 계속된 2007 프로야구 롯데전에 앞서 6.2이닝 동안 4피안타, 5탈삼진, 1자책점으로 팀의 7-2 대승을 이끌며 시즌 5승째(12패)를 챙겼다. 직구 최고 구속도 147km가 찍혔다.

전반기 막판 오른쪽 아킬레스 건염으로 2군에 내려갔던 윤석민은 1군에 합류한 지난 20일 현대전에서 3.1이닝 2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데 이어 이날 롯데쇼로 부상에서 확실하게 회복했음을 알렸다.

전반기 내내 윤석민만 나오면 침묵하던 동료들의 방망이도 이날은 힘껏 돌아갔다.

그동안 아팠던 장성호, 홍세완, 최희섭, 심재학 등이 가세한 팀 타선은 장단 12안타를 터트리며 롯데 투수들의 혼을 속 빼놓았다. 진력이 안정되니 찬스가 오면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집중력이 되살아났다.

KIA 타선은 0-1로 뒤진 4회 선두타자 장성호의 좌전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1사 이후 홍세완 타석때 상대 3루수 정보명의 수비에러를 틈타 1사 2, 3루를 만들었고, 김원섭의 좌전 적시타로 2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순식간에 뒤집었다.

한편 투진 방망이는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계속된 공격에서 심재학의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깊숙한 2루타로 1점을 보냈고, 김성훈의 중전안타와 김중국의 희생플라이로 또 1점을 더했다. 4회에만 타자 일순하며 5안타 4득점을 몰아친 것. KIA는 5회에도 1사 민투에서 김성훈의 중전안타로 1점을 뽑아냈고, 8회에도 상대 수비실책과 볼넷 1개, 안타 2개를 묶어 2점을 추가했다.

메이저 리그 출신 4번타자 최희섭은 5타수 2안타(1득점, 1타점)를 기록했고, 홈런이 첫 홈런은 다음으로 미웠다. KIA는 이날 승리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서머리그서 4승1패를 달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귀환 승업’ 연타석 홈런

북귀전서 16·17호 아치

원손 엄지 통증으로 2군으로 내려갔던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북귀전에서 홈런 두 방을 몰아쳤다.

이승엽은 24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후반기 첫 경기에서 팀이 0-5로 끌려 가던 6회 1사 1루의 세 번째 타석에서 요코하마 좌완 선발 구도 기미야스의 바깥쪽 떨어지는 커브를 받아쳐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비거리 135m짜리 대형 2점포를 작렬시켰다.

공의 궤적을 끝까지 보면서 몸을 최대한 낮춘 채 상하체를 동시에 이용한 힘찬 스윙으로 도쿄돔 전광판 밑쪽으로 타구를 날려 보냈다. 시즌 16호 홈런으로 지난 1일 히로시마 시민구장에서 히로시마 도요 카프를 상대로 15호이자 일본 통산 100개째 홈런을 때린 뒤 23일 만에 나온 대포다.

그는 2-5이던 8회에도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투수 나스노 다쿠미의 바깥쪽 낮은 타구를 걷어올려 역시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시즌 17호)를 추가했다.

이승엽은 지난 12일 원손 엄지 통증이 심

해서 자진해 2군으로 내려간 뒤 북귀한 후반기 첫 경기에서 아치를 두 개나 작렬시켜 히로시마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날 1루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이승엽은 2회 첫 타석에서는 구도의 몸쪽 직구 에 물고리미 삼진으로 물러났으나 4회 1사 1루에서는 구도의 바깥쪽 슬라이더를 결대로 밀어 유격수쪽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승엽은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팀 득점을 원맨쇼를 펼쳤고, 팀은 4-8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前 두산 용병 쿨바, 타구 맞고 사망

위험 앞에 내몰린 프로야구 코치들

한국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던 마이클 쿨바가 파울 타구에 머리를 강타 당해 사망한 지 하루가 지난 24일(한국시간), 미국에서는 상존하는 위험에 내몰린 1, 3루 주루 코치들의 삶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자는 물론 상대 배터리의 움직임, 상대 수비진의 포메이션 등을 끊임없이 주시해야 하는 1, 3루 주루코치는 어디서 공이 날아올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전날 유명을 달리던 쿨바는 1루 코치석 박스에서 상대 선수가 친 직선 파울 타구를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맞는 변을 당했다.

보호장구를 머리에 쓰고 나선다. 콜로라도 로키스의 1루 코치 글레넨 힐은 “타구로부터 보호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타자가 1루에 도달했을 때 코치들에게 건네 주는 신가드(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을 내가 직접 착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속 160km가 훨씬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타구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3루 코치는 주자가 2루에 있고 주루 사인을 낼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제 아무리 보호 장구를 단단히 갖춰더라도 타구에 맞으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